예순 스님과 구순 노모의 마지막 여행

로드다큐멘터리 영화 '佛효자' 5월 개봉

마가 스님과 어머니 여행 영화로 제작
전국 사찰 아름다운 풍경에 '孝' 담아내
마곡사 등 2년여 동안 30여 차례 여행
후반 편집작업, 4월 15일 시사회 예정



영화 '佛효자' 스틸컷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저는 불효자입니다." / "다음 생에 만나갖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순을 넘긴 출가자와 구순을 넘긴 그의 노모가 함께한 '지구별 마지막 여행'을 영상에 담은 로드 다큐멘터리 영화가 5월에 관객을 찾아간다.

2000년 대 '자비명상'으로 불가적 힐링의 시대를 열었던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이 40년 만에 속가의 어머니(박종순)와 떠난 2년여의 여행을 영상으로 옮긴 영화 '佛효자'다. 영화의 제작사인 부디 스튜디오(대표 최진규)는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풍경과 함께 효(孝)의 의미를 담은 영화 '佛효자'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어머니, 누구나 한 번 쯤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할 이름 어머니. 스무 살에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해 어느덧 육십을 넘긴 수행자도 가슴속에선 그 이름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다. 마침내 가장 뜨겁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 어느 날, 스님은 구순의 노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노모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갈은 아들의 가슴을 묵직하게 두드렸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달려간 스님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부처님 울타리로 모셔왔다. 그리고 스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 스님은 걷기도 힘든 어머니를 등에 업고, 휠체어로 전국의 사찰을 여행하며 끊어졌던 세월의 여백을 채워간다. 영화 '佛효자'는 그렇게 시작됐다. 연출을 맡은 최진규 감독이 마가 스님과 박종순 여사의 여행에 동행하게 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마가 스님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의 의미가 담긴 법당 '미고사'를 캠핑카에 만들어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며 지난 세월의 오해를 풀고 어머니의 다음 생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린다. 여행의 마지막 날 스님은 낡은 보자기에 싸인 어머니의 선물을 받게 되고 다가오는 이별을 위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한다.

영화는 마가 스님과 그의 어머니가 걸어가는 여행을 뒤따르며 하루하루 생과 이별 속에서 모자가 그려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구순을 넘긴 노모가 예순을 넘긴 아들스님 머리에 빈 수박껍질을 씌우고 목탁을 두드리듯 수박껍질을 두드린다. 스님은 노모의 장단에 맞춰 "나무이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왼다. 수박씨를 얼굴에 붙이고 재롱을 떠는 스님은 "애기 때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 해주시는 것 같네"라며 어리광을 부린다. 나란히 앉아 백팔염주을 마주 잡은 아들과 노모는 그리움으로 살아왔던 세월을 말없이 주고받는다. 멈추고 싶은 시간이 흐른다. 스님은 휠체어에 노모를 모시고 푸른 연밭을 거닐고, 굽이굽이 계단을 업어 오른다.

영화는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가르친 불교경전 '부모은중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뒷전으로 밀린 효의 가치를 스님과 어머니의 여행을 통해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92세의 어머니는 60이 넘은 아들의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다. 어렸을 때 챙겨주지 못한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였다. 아들은 한 번도 함께 여행을 해보지 못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의 사찰을 돌며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고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 영화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전하는 힐링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는 유네스코 7대 사찰 마곡사, 법주사, 부석사, 봉정사, 선암사, 대흥사, 통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다. 마가 스님과 그의 어머니는 2년 동안 30여 차례의 여행을 했다. 전국을 5바퀴 정도 돌았다.

마가 스님은 스무 살 때 월정사에서 출가했다. 스무 살의 한 청년은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한 오대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삶을 끊어내려 했지만 삶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월정사 노스님의 인연으로 청년은 살아나고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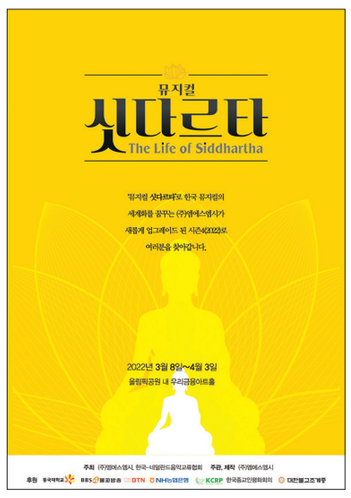
마가 스님은 2002년에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은 적이 있다. 병환의 노모는 머리를 깎고 찾아온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린다. 밥상을 받은 아들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흐른다. 마가 스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자비명상'은 마가 스님이 노모를 모실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원력에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한 시대의 국민 힐링멘토로 불렸던 스님의 '자비명상'은 모정불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최진규 감독은 "이번 영화제작을 진행하며 한국불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는 촬영을 마치고 막바지 편집 작업 중이다. 4월 15일 시사회를 열 예정이며,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 5월에 개봉할 예정이다.

개봉에 맞춰 전국의 가족들이 효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로 참여하는 '저는 佛효자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게 될 '佛효자 에세이' 출판도 예정되어 있다.

영화의 주인공 마가 스님은 "영화가 개봉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면서 "이번 영화 '불효자'를 통해 불교에서의 효의 의미와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뮤지컬 '싯다르타' 시즌 4 열린다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신유와 간미연 등 캐스팅

2019년 9월 5일 초연된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연출 최민욱)'의 시즌 4의 공연이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다.

네 번째 시즌으로 새롭게 돌아온 뮤지컬 '싯다르타'의 새로운 캐스팅 라인업도 발표됐다. 태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의 길을 가는 고타마 싯다르타 역에는 트로트 가수 신유와 뮤지컬 배우 박시원이 캐스팅 됐으며, 싯다르타를 끊임없이 번뇌의 길로 유혹하는 마라 파피아스 역에는 고유진, 윤형렬, 윤진웅이 캐스팅됐다.

콜리야국 공주이며 싯다르타의 아내인 야소다라 역은 간미연, 권미희, 박혜민이 함께하며, 카필라국의 왕이자 싯다르타의 아버지인 슈도다나 역은 박태성, 유기호가, 싯다르타의 시종이자 그의 유년기시절부터 함께한 찬나 역은 정휘욱, 한상욱이 야소다라의 시종인 우팔라 역은 안지현과 최고운이 캐시팅되어 17명의 앙상블과 함께 뜨거운 무대를 선보인다.

싯다르타 역의 신유는 뮤지컬 '비애비'에 출연했으며, 앨범 〈Luxury Trot Of Shin Yu〉 등을 발표했으며, SBS 드라마 〈승부사〉 등 다수의 OSYT에 참여했다.

싯다르타의 역의 박시원은 뮤지컬 '블루레인', 연극 '만추', 드라마 '상어' 등에 출연했다.

야소다라의 역의 간미연은 뮤지컬 '킹아더', 드라마 '무림학교'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SBS 러브 FM '간미연의 러비나잇'을 진행하고 있다.

야소다라 역의 권미희는 앨범 '마음' 등을 발표했으며, 방송 '풍류대장' 등에 출연했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를 역임했다.

야소다라 역의 박혜민은 뮤지컬 '월화전' 등에 출연했으며,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뮤지컬 부분 신인상을 수상했다.

2019년 9월 5일 초연된 뮤지컬 '싯다르타'의 이번 네 번째 시즌에서는 각색과 연출을 맡은 최민욱과 안무를 맡은 김도후가 새롭게 참여하여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드라마의 구성을 탄탄하게 하여 밀도 있게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조범준(작곡가/음악감독)의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여 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였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고대인도의 카필라 왕국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연대기가 아닌 3개의 에피소드, 신부를 맞이하던 날, 출가를 결심하던 날, 붓다가 된 날, 세 번의 '그 날'로 구성한 대형 창작 뮤지컬이다. 총 공연시간은 150분(인터미션 포함)이다.

새롭게 각색과 연출을 맡은 최민욱은 뮤지컬 'Hear my song' 시즌 1 · 2, '동행', '거정레스토랑', 퓨전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가' 등을 연출했다. 공연문의 1661-4191. 박재완 기자